

사설

직장법회 활성화하려면

모든 종류의 신행생활은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찰은 현전삼보가 머무는 신성한 공간이므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공덕이 된다.

어떤 사람은 '공은 마음이 곧 도량(直心是道場)'이라는 (유마경)의 말씀을 들먹이며 마음만 곱으면 그곳이 어디든 삼보가 머무는 곳이며 수행하는 도량이 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공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 현전삼보가 머무는 신성한 도량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현대의 불자들은 여러 가지로 종교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우선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고, 또 가까운 곳에 마땅히 찾아갈 사찰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절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자들이 동종직업이나 직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행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해온 것은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현대생활은 직업과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직업이나 직장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자주 모임 기회도 많고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면 거리나 시간의 제약으로 소홀할 수 있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직장 직능법회가 구성돼서 현재 그 숫자가 전국적으로 수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포교적 측면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렇게 직장 직능법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해서 그 미래가 낙관적인 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직장 직능법회가 사찰 밖에서

꾸러지다 보니 몇 가지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수행의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법회를 이끌어갈 지도법사를 모시기 어렵다는 점, 셋째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다.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회를 이끌어갈 지도법사 문제다. 법회장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법회를 이끌어갈 법사님 확보는 별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이 직장법회 관계자들이 털어놓는 한결같은 애로사항이다.

종단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이상 방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직장 직능법회에 참가하고 있는 불자들의 수가 수십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면 이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과 문제점을 범불교 차원에서 해소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19~20일 조계종 포교원이 직장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대회를 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포교원은 이 기간 중에 직장직능단체 상호간의 유익한 정보교환과 연대감 형성, 이를 바탕으로 한 동일직종 또는 직능간의 연합조직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이 이렇게 직장직능 신행단체 대표자를 모아서 연합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들 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자들이 이 기회에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토론했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은 마음이 곧 도량'이 되도록 하자면 이런 모임은 정말 중요하다.

“건축법 개정 따른 사찰환경 피해 없도록

법적장치 조속 마련”

박지원 문화부장관 조계종 방문서 밝혀

박지원 문화부장관은 7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했으나, 본의아니게 사찰에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유감을 표하고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사찰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인사를 위해 조계종총무원을 방문한 박지원은 총무원장 고산스님에게 이같이 밝히고 “문화재보호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각 시·도지사에게 공문을 보내 건축법 8조 4항의 폐지로 전통사찰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사찰의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 자제를 요청했다.

박지원은 또 이날 고산 총무원장에게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 화합에 불교계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고산스님은 이 자리에서 박지원에게 내년 연등축제와 진감국사의 달 행사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정신문화 계발과 예의·도덕 선양, 종교간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산스님은 연등축제를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신라시대 때 행해진 육륜법회(六輪法會)를 재현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륜법회는 천상, 인간, 축생, 아귀, 아수라 등을 6개의 장면으로 연출하는 가두행진의 일종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취임인사를 위해 총무원을 방문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경주불교엑스포 조기 폐막

종단협 “체불수습 노력중”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는 9일 경주에서 열린 한국 불교엑스포대회에서 “종단협의회는 불교엑스포대전의 취지에 동참해 행사후원 차원에서 주최자 명의사용만 허락했을 뿐”이라며 “입주업체와의 계약은 행사주관사인 한국피에스엠(대표 김재신)에 있어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단협의회는 김재신 씨에게 체불금(약 6천5백만원) 지급을 종용하는 등 사태를 마무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엑스포대전은 4월 30일 개막해 37일 동안 경주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렸으나 관람객 저조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조기 폐막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신씨가 행방을 감춰 파행운동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입주업체들과 협력업체들은 종단협의회에 피해보상과 체불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종단협의회는 이번 행사로 불교의 이미지가 훼손됐으며, 이후 명의사용 허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운 기자

을 임명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총무원에서 이승규(52·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서무과장을 임명했다.

이 중무원은 명지대의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문광부 감사과장, 문화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겸직금지 해제등 논의 조계종 종헌 중법특위

조계종 종헌·중법개정특위(위원장 정유)는 7~9일 총회 사무처 회의실 등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종헌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겸직금지 해제와 중앙종무기구 개편과 관련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참석자는 “종헌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또는 5년 단임제로 의견이 모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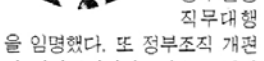
특위는 이달 20~30일 사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종헌·중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7월말 임시총회를 열어 종헌·중법 특위가 제출할 종헌·중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문화부총무관 이승규씨

문화관광부 부는 11일 총무실장에 김순길 총무실장 직무대행



을 임명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총무원에서 이승규(52·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서무과장을 임명했다.

이 중무원은 명지대의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문광부 감사과장, 문화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설립

불교등 종교인 24명 참여... 복지발전 모색

종교계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와 종교간의 상호이해와 연대를 목적으로 한 종교사회복지연구소가 설립됐다.

종교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혜숙)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마련한 연구소에서 현관식 및 기념 특강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 연구소 설립은 지난해부터 종교단체 복지 관계자들이 만나 범종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한편 연구소 개원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특강에서는 미국에서 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에드워드 칸다 교수(켄사스대 사회복지대학)가 ‘spirituality와 사회사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에 따라 종교사회복지연구소는 월례연구모임, 연례 세미나, 워크숍, 연구 성과를 간행, 종교계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국제 교류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이 연구소에는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인과 학자 등 24명이 참여하

고 있으며, 불교계에서는 소장인 이혜숙씨(동국대 강사), 상덕스님(육수종합사회복지관장) 성덕스님(방생선원장) 김용철교수(중앙승가대) 등 모두 10인이 개인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혜숙 소장은 “일반복지와 종교계의 사회복지에 차별을 두는 범종교적인 사회복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종교사회복지발전의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 개원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특강에서는 미국에서 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에드워드 칸다 교수(켄사스대 사회복지대학)가 ‘spirituality와 사회사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본말사 주지연수

조계종 교육원, 이달말부터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이달말부터 오는 10월말까지 6개 권역별로 나눠 본말사 주지연수를 실시한다.

첫 주지연수는 29~30일 천안 주택은행 연수원에서 법주사와 마곡사, 수덕사 등 충청지역 본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직할교구를 비롯한 서울·경기·강원지역(용주사 신홍사 월정사 봉선사, 9월 20~21일)과 경북지역(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고운사, 9월 29~30일), 경남지역(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10월 7~7일), 호남지역(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 10월 21~22일) 등 권역별로 본말사 주지연수가 실시된다.

김재경 기자

정신세계가 두뇌신경

현대만평



군법당 기금인데...

737-8881

불광사·불광법회 제2대 법주 지정 스님 추대식 봉행

“한국불교 현대화 대중화의 기수로서 전법의 횃불을 드높이겠습니다”

저희 대중은 한국불교 현대화와 대중화의 횃불이셨던 불광사·불광법회 초대 법주이신 광덕 큰스님의 열반으로 스님의 만상좌이신 지정(至淨) 스님을 제 2대 법주로 추대하오며, 더욱 힘찬 정진과 전법으로 바라밀 국토 성취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공동 추대위원장

지환 (은상좌 대표)
하산 박충일 (불광사·불광법회 회장)

추대 위원

지환, 지오, 지연, 지상, 혜성, 지원, 지홍, 지문, 상진, 성일, 혜운, 학분, 지선, 경민, 지명, 지철, 지인, 지현, 지모, 지중, 지성, 지암, 지명, 지도, 지한, 상근(光德 스님 恩上佐)
진호, 진산, 진웅, 대일, 대각, 대웅, 대해, 본공, 본각, 정안, 통일, 원일, 범호, 대우(孫上佐)

한말 스님, 송석규, 신영규, 김기동, 맹만섭, 조용길(불광사·불광법회 전 회장단)
박충일, 김상규, 김재영, 이경호, 이홍희, 차정욱, 김정자, 이승한, 류정수, 김만연, 정진용, 김길원, 김창호, 정철선, 김남희, 최계순, 석주화, 김영숙, 한정욱, 국용경(현 회장단)

항적보살단, 선학보살단, 명동보살단 및 구법회 각 법회 임원단, 초·중고등학교 지도 교사단, 법사단, 청년·일반 법회 법사단, 월간 불광·불광출판부·도서출판 한강수, 불광유치원·불광사·불광법회 대중 임동